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녹)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025년 10월 19일(제2156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 국 학 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 심 단 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 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 사	주 일 미 사	오전 8시 / 11시
	평 일 미 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 ·금· 토 오전 11시
성 사	고 해 성 사	미사 30분 전
	병 자 성 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 배 성 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서 .2,1-5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 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가]									
8시	입당	39	봉헌	218	성체	174	파견	63
11시	입당	39	봉헌	340	성체	498, 152	파견	257

연중 제29주일	10월 19일(주일)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10월 23일(목)	10월 24일(금)	10월 2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채성일 토마스	황혜정 데레사					성령 기도회
독 서	정기환 레안텔 정미경 말가리다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성령 기도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이은자 마트로나					이성연 베로니카
묵주기도	정미경 말가리다	천종욱 다니엘					이명국 바오로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 10월 묵주기도 성월

- 10월은 묵주기도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화와 우리 가정이 성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성모님의 도우심을 빌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또한 복음 선포를 위하여 이웃에게 말과 행실의 증거로 전교합시다.

△매 미사 30분 전에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묵주 기도 지향: 각자 개인 지향을 생각하면서

■10월 성경 통독

- 티모테오 1서, 4,1-6,21

■10월 25일 토요일 미사 전례 : 성령기도회

-- 병자성유 도유 예식 있습니다

■유아세례 안내

- 일시 : 10월 26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중
- 신청 : 10월 25일(토)까지 사무실

■11월 위령성월미사 안내

첫째 미사: 성당, 11월 1일(토), 오전 11시
(미사 후 점심 제공)
둘째 미사: Gate of Heaven, 11월 1일(토), 오후 2시
(연도: 오후 1시 40분)
셋째미사: Hayward 묘지, 11월 5일(수), 오전 11시

■11월 위령성월 특별 연도

-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 형제, 친인척, 친구, 교형자매님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들의 영혼이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 특별 연도를 바칩니다.
- 기억하고 싶은 분 사진을 11월 9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특별연도 때 영상으로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11월 15일(토), 11시 미사 후
- 특별 연도 후 점심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11월 안나/요아킴 모임도 당일에 합니다.

■미서중부 제 28차 전체 울뜨레야

- 일시 : 10/25(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 접수 및 문의 : 울뜨레아 간사(510-688-0155)

■본당 신부님 휴가 관계로 10월 21일(화)-24일(금) 평일미사는 없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모임 및 회의

- 샌리 앤드로: 10월 19일 12:00 교육관 201호
- 리치몬드/버클리: 10월 19일 12:0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10월 19일 교육관 107호
- 알라메다: B.B. Bowl, 10월 26일 오후 5시 30분

■ 2026년도 달력 광고주 모집

- 본당 달력에 광고를 실으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밥나눔 안내

- 이번주 밥나눔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 해외 선교 기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 수입/지출 현황

- 9월 본당 재정 보고
  수입: 지출: 잔액:
- **25년 1월~9월 수입/지출 누적**
  수입: 지출: 잔액:

* 자세한 내역은 친교실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황정기 율리안나 자매님이 친교실에 냉온정수기와 컵세정기를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장민우, 김옥자마리아, 김혜숙아네스 유낙양베로니카,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수인, 조지현 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최혜자 벨라데다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⑤ 게이트 출구에서 좌우 살피고 운전하기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야외미사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다리아(10/25)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가을 거리를 거닐며

가을은 하루하루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해 가며, 너의 영혼은 안녕한가 안부를 물어온다**.** 점점 짧아져 가는 하루 해가 질 무렵이면, 나는 알라메다의 골목길을 쏘다니다,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곤 한다. 길게 드리운 가을 햇살은 투명하고, 따스하나, 동시에 창백하다. 그리고 금새 사라진다.

오클랜드 한인성당 야외 미사를 함께 하며

오늘은 내가 다니는 오클랜드 한인 성당이 창립 41주년을 맞아 야외 미사를 드렸다. 레드우드 나무가 빽빽한 숲속에서 드리는 이 미사에서, 이민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미국이란 곳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신자들이 느끼고 겪어야 했을,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내 맘을 스쳐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젊은 교회가 아닌 나이 들어 버린 이민 교회는 왠지 좀 더 서글프다.

너도 늙어 가고 나도 늙어 가는 이 성스러운 시간의 전례 안에서, 가을날의 숲이 내뿜는 나무 향기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는 생의 순례에서, 한자리에 모여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도 애틋하다. 어떤 경위에서였든, 이민자라는 삶이 부여한 정체성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이 순간이 성찬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각 구역은 저마다 솜씨를 자랑했는데, 소풍 날 아침이면 엄마가 싸 주시던 것 같은 김밥도 있었고, 즉석에서 구운 갈비도 있었다. 점점 식사는 풍요로워져 갔다. 실버구역, 라스모어 구역 형제자매들이 준비한 음식이 차가운 샌드위치라 마음에 걸려서, 여기저기 다른 구역의 오뎅이나 고기 같은 뜨끈한 음식들을 날라다 드렸다. 혹시 마음이 추워질까 봐. 하지만 그건 나의 기우였다. **곧 각 구역의 음식은 다른 구역의 식탁으로 옮겨지고, 배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들은 다섯 광주리를 확실히 넘겼다.**

나병 환자에 관한 복음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미사 중에 들은 복음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다. 나병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 사람은 감사를 드리러 왔는데, 나머지 아홉 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 사실 치유를 확인한 그들은 바빴을 게다. 그동안 못 만난 식구들도 보고 싶었고, 교회 지도자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을 거다. 그렇게 빨리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을 거란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신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회복을 체험할 때, 하늘스런 공동체를 만날 때,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 또 빨리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본질은 내가 경험하는 이 새로움을 진심으로 느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차원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인정이나,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이 변화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원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곰곰이, 감사의 시간을 진지하게 주님께 내어 드린 적이 있었나를 헤아려 본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 공부를 하고,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페이퍼를 쓰고 나서, 내 수고를, 아무도 없는 학교 성당, 성체 앞에 놓아 드렸었다.

동시에, 슬픔도 그분께 내어 드리는 일을 자주 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내가 베트남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젊은 수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마음만 무너졌다. 늘 수줍게 미소 짓던 그 수사님의 고운 모습이 떠올라서. 나는 그를 위한 위령 기도를 하다 말고 꽃집으로 달려갔다. 그를 떠올리게 하는 하얀 데이지를 한 아름 사서는 성모님께 놓아 드렸다. 이제 하늘에서 반짝이며 계실 그 수사님을 잃는 슬픔을 봉헌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 어쩌면, 이렇게 크고 작은 기쁨과 감사, 슬픔과 고통이 봉헌될 때, 삶은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 삶에서 축제란?

축제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살면서 일상을 벗어나게 해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신앙인인 내게 축제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 나와는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고백하며, 식탁을 나누는 일, 삶의 희노애락을 알뜰히 주님께 봉헌하는 일,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만나는 정겨운 순간들을 가을날 오후의 짧아지는 햇살처럼 감사하며 만나는 일, 그리고 텅 빈 들판 같은 맘으로 섭섭한 마음들을 비워 내고 해맑게 웃어 보는 일. 그런 순간들이 축제일 것 같다.** 그런 축제를 살고 싶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당겨서 살아 낼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맘으로 이 축제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보고 싶다.

우리 본당 공동체의 축제에서 받은 그 풍요로움을 잘 간직하기 위해 온 저녁을 걸어 다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고요함 속에 흐르는 시간 앞에서, 마지막 햇빛을 끝까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잔잔한 어둠을 마주한다. "부드러운 어둠의 시간도 아름답네"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아늑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축제의 순간을 맞이한다.



출처: 2025-10-13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박정은 수녀님 기고 글
<본당 협력 사목 수녀>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6명	131명	167명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이흥구(10-12), 허수원(9-11), 정병구(10-12), 김영희(11)						윤성진	정병구			본당신부님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0/19(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0/21(화)**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10/22(수)**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김마르코	가족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연	김정희 율리엣다	가족				
	연	김요셉/안나	자녀들	**10/23(목)**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쓰				
	연	김만옥 요안나	윤루카/루시아				
	연	윤Dana 요한	윤사비나				
	연	윤Dana 요한	명모니카				
	연	김계열 카타리나	황현숙 아그네스				
	연	박시몬 부모님	박상일 시몬	**10/24(금)**			
	연	최순의데레사	박용숙 카타리나				
	연	정창희 베드로	정흠 요셉				
				10/25(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10/19(일)	생	데이빗 골든	순배 수산나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강윤희 보나	순배 수산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상실 가롤로	안나회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조에드워드	조분도		연	김순기 루갈다	전윤자 데레사
	생	조소피아	조분도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김영선 안젤라	김엘리사벳		생	허홍숙 세실리아	정분다
	생	황정숙 말찌나	김엘리사벳		생	허홍숙 세실리아	가족
	생	황정숙 말찌나	라스모아/라모린다		생	한윤정 아가다	최명주 젬마
	생	권영섭 요셉	김엘리사벳		생	김태용 요한	최명주 젬마
	생	김안드레아/아네스 부부	라스모아/라모린다		생	김예빈 Abigail	익명
	생	팽현팔 하비에르	라스모아/라모린다		생	김민지 세실리아	익명
	생	팽현팔 하비에르	김광석 베드로				
	생	김원조 도미니코	김정옥 그라시아				
	생	허홍숙 세실리아	정분다				
	생	허홍숙 세실리아	가족				
	생	허홍숙 세실리아	유윤미 리디아				
	생	허홍숙 세실리아	조요한/안젤라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생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김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